

2026년 종로-성균 동아시아 아카데미 프로그램 세부 내용

○ 강의개요

- 강 좌 명 : “동아시아 역사를 움직인 인물과 사건”
- 교육기간 : 2026. 4 .2.(목) ~ 5. 14.(목) 매주 목요일 14:00~17:00
- 교육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강의내용

1강	주제	신이 되고자 한 인간, 진시황제(秦始皇帝)
강사	김경호(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원장)	
세부 내용	진시황제가 이룬 ‘통일’ 의 실상을 조명함과 동시에 1970년대 이후 지하에서 발견된 이른바 출토자료에 근거하여 진시황제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에 묘사된 기존 역사 서술과는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즉 최대의 진시황제와의 동시대 시점을 통해 절대권력자가 아닌 ‘인간’ 진시황제의 흔적을 더듬어 가고자 한다.	

2강	주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기술: 기억과 역사, 그리고 한일 관계
강사	김병진(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 교수)	
세부 내용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과 ‘임나일본부설’ 처럼 한일 고대사를 둘러싼 대표적 논쟁이 처음부터 사실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신화가 역사로 포장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온 과정을 따라가며 설명한다. 『고사기』 · 『일본서기』, 칠지도 명문, 광개토왕비문, ‘왜의 5왕’ 기록 등 핵심 사료와 유물을 통해 해석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전후 학계의 반성과 오늘날 역사수정주의 담론까지 연결되는 지점을 밝혀본다.	

3강	주제	임진왜란,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
강사	한상우(아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세부 내용	16세기 동아시아를 휩쓴 국제전쟁, 임진왜란은 흔히 이순신 · 권율 · 류성룡 · 광재우 등 영웅들의 활약을 중심으로 기억되어 왔다. 그러나 본 강연은 그 이면에서 전쟁을 살아낸 평범하지만 동시에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다를 건너와 조선을 위해 싸웠던 항왜와 명나라 군사들,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과 그 가운데 살아 돌아온 자들의 삶을 통해, 유례없는 규모의 국제전쟁이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을 살피고 영웅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다양한 존재들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한다.	

4강	주제	와세다대학과 최남선, 이병도, 이기백
강사	심희찬(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세부 내용	초창기 한국역사학의 수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세 명의 역사가, 최남선, 이병도, 이기백을 그들의 일본 유학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사람은 세대도 다르고 역사학에 대한 관점도 다르지만 모두 일본 와세다대학에 유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학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5강	주제	멈추지 않는 '화차(火車)' 에 올라탄 사회: 일본 버블의 비극과 한국의 오늘
강사	박이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세부 내용	일본 소설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소설 1992, 영화(변영주 감독) 2012)는 화려한 소비 이면에 가려진 잔인한 경제의 민낯을 투영한다. 본 강좌는 작품 속 비극을 입구 삼아 1980년대 일본 열도를 광기로 몰아넣었던 버블 경제의 형성부터 붕괴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던 낙관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살피고, 이를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본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던지는 경고를 통해, 욕망의 수레에서 내려와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6강	주제	중국의 비밀결사 천지회
강사	이평수(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세부 내용	청나라의 비밀결사를 대표하는 천지회는 복건, 광둥, 광서 등 중국의 남부 지역을 중심 무대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와 수호전(水滸傳)에 보이는 피로써 의형제의 관계를 맺는 전통사회의 유산을 계승하여 건륭 26년(1761)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이들의 내부분서인 회부(會簿)를 토대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가면서 근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방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천지회에 가담한 수 많은 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이야기해 본다.	

7강	주제	장준하와 7.4남북공동성명
강사	오제연(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세부 내용	장준하에게 민족 사상, 즉 민족주의는 절대적인 이념이었고, 그중에서도 통일은 궁극적인 목표였다. 민주주의와 근대화는 민족의 통일, 생존, 번영을 위한 수단이자 방법이었고 평화도 마찬가지였다. 단, 같은 수단과 방법이라도 1970년대 이전까지 장준하에게 평화는 민주주의나 근대화에 비해 그다지 중요한 위상과 의미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통일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통일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평화가 장준하의 사상에서 중요한 위상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	